

■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 회의명 :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3차
- 회의일시 : 2023년 1월 5일(목) 13: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중연습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량원, 김예림, 이지현, 전강희, 전진모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3차 심의는 장르 간 통합심의로 이루어졌다. 1차 장르별 서류 심의와 2차 축제 단체 대상 인터뷰 심의를 거쳐 올라온 총 108건에 대해서, 신청공연장, 신청 일자, 신청 사용 일수를 고려해 많은 단체가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달을 월별로 자세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간과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체들이 원하는 시기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자 하였으며, 장르 간 균형 잡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총 86건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관 신청단체 중에는 예술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이어온 단체, 우수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단체, 참신한 주제와 형식을 보여주는 신진 단체, 극장이 지향하는 미래극장의 역할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상당수였지만, 공간이 4개뿐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흥미로운 작업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소극장 경합이 매우 치열하여, 1차, 2차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연극 장르는 상반기에는 주로 신진 단체들이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신진, 중진 할 것 없이 신청단체 대다수가 몰려있어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졌다. 3주에서 4주 정도를 대관 신청한 단체들이 많았지만, 형평성을 위해 대관 기간을 2주로 통일하였다. 무용 장르는 연극에 비해 긴 시간 극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체가 신청한 사용 일수를 대부분 가능하게 하면서 신진과 중진 단체의 균형적인 안배에 더 집중하였다.

축제는 최근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며칠을 진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일수를 조정했다. 무용 분야의 축제가 예전과 비슷한 일수를 신청한 것에 비해서, 연극이나 통합/기타 장르의 축제들은 신청일 수가 대폭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도 공간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예년 평균 일수를 적용하여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극장 공간도 평균적으로 사용하던 공간 수에 비해서 더 요구했을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다. 이 부분은 2차 인터뷰 심의 때 해당 단체들과 논의했던 점을 근거로 반영하였다.

축제들이 극장을 사용하는 일수의 총합이 개별 공연단체들이 극장을 사용하는 일수의 총합보다 많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일수를 조정했다. 또한, 2개년 축제 연속 지원을 신청한 단체일지라도 다음 해의 축제 방향성이나 계획하는 프로그램, 미리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예술가에 대한 언급이 없을 시에 2개년 지원을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내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다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3차 심의는 1차, 2차 심의를 거쳐 올라온 단체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극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숙제였다. 심의 대부분 결과가 그러하듯, 공간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선정단체를 줄일 수밖에 없어 무척이나 아쉽다. 선정 결과를 떠나 이 과정에 참여한 단체들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공공극장으로서 미래극장의 역할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예술 현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담론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지켜보며 응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기를 기대해 본다.

심의위원 일동